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7-11호 2007년 11월 16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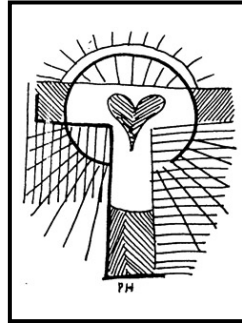
월례회: 매월 셋째 금요일 7:30 PM 웹사이트: kr.blog.yahoo.com/bonasfo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매일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영성은 실천에 옮겨야 할 세부적 일정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을 따르는 데에 중심을 두는 생활계획이다. - 회헌 9조1항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우리의 능력은 역설적으로 사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닮았다는 것을 늘상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보기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때가 있다. 참지 못하고, 성내며, 뒤에서 헐뜯고, 탐욕스러우며, 용서하지 못하는 등,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불쌍한 습관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분명, 이 만나는 일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신앙의 진리가 실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실행하는 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우리에게 사람의 외적 모습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적 신앙 태도가 필요하다. 다른 이들 안에서 거주하시는 하느님 영의 실재를 믿는 것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런 믿음이 외적 모습을 넘어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마음에 도달하고자, 우리가 사람들을 지각하는 방법이다. 아무리 잘 숨어 계셔도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괴팍한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말이다. 우리는 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찾으려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칙은 우리에게 이런 영,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포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습관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보는 방식으로 그것을 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인식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성을 요구한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그들의 개인적인 잘못과

약함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느님을 본따라 한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까다롭다해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같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연다. 그것은 타인들을 강요하지도 않고, 강요할 수도 없다. 그것은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들은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을 제의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의 도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기 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이다. 그 '어떻게'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각각의 상황이 특수한 사랑의 방식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 현명한 프란치스코인은 어려운 상황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천으로부터, 우리는 상황과 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비록 우리가 다른 모든 면에서 교회에 충실한다 하더라도, 구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죄받기에 충분한 심각한 죄이다. (교회헌장 14항 2권 37쪽)

- '더 많은 데이지 꽃을 거두십시오'에서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찾을 것인가?

그러므로 회원은 형제들 가운데서, 성서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례 행위 안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드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성 프란치스코의 믿음이 회원의 성체성사 생활에 대한 영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 회칙 제5조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의 실제 삶은 인간에 대한 가장 심원한 관건이요 열망으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의 인격적이고 생생한 만남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거룩함의 초대이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전적인 삶 안에서 나누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정신에 의해 움직이는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견하여야 한다.

회칙은 형제들 안에서, 하느님 말씀과 교회 안에서, 전례 행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하느님이 주 저자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고 현존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서 안에서, 특히 인간-하느님의 면모를 잘 드러내주는 복음서 안에서.

둘째,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인 사람들 안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자신의 봉사를 관대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들과 더불어 보편적인 형제회의 건설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형제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형제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각 형제들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되고 인류 구원의 의미요 표지가 되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 교회는 우리 구원의 ‘어머니’

이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공적인 서원을 통하여 ‘종교적인 끈’을 맺게 된다.

넷째, 집전자와 봉사자가 그리스도인의 전례 행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재현하는 전례 행위는 우리를 참여자가 되도록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전례 안에 살아계신다.

특히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요 절정인 성체성사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이는 다른 모든 성사들처럼 은총을 가져다준다. 또한 성체성사는 성체, 성혈, 영 그리고 신성 안에 실제로 현존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다.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드님을 눈으로 결코 볼 수 없기”(유언 10) 때문이다.

끝으로, 그리스도는 피조물과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 모든 사건 그리고 자연현상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한다. 또한 세상사를 바라보며 시대의 표징을 읽도록 하여야 한다.

이 권고로써 회칙은 성 프란치스코가 온갖 피조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들과 성서 그리고 전례 안에서 확연하게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신 내적인 자세를 본받고 모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회개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때나 분노하지 않는다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요,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 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월망을 월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남들이 모두 악행 한다고 가담하지 말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은 것은 싸우기 싫어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진정한
참음이다.

욕설과 혈뺨음을 못 참는 것은 어리석음이니
돌가루를 두 눈에 넣은 것 같고,
욕설과 비방을 잘 참음은 지혜로움이니
코끼리 등 위를 화려하게 꾸밈과 같다.

욕설과 비방으로 지혜로운 이를 어찌하지 못함은
큰 바위에 폭우가 쏟아져도 부서지지 않음과 같아
비방과 칭찬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이 그러해서 욕을 먹으면
그것이 사실이니 성낼 것도 없고
사실이 아닌데도 욕을 먹으면
욕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때나 분노하지 않는다.

- '잡보장경' 중에서 -

돌아 보면 언제나 혼자였다

나를 사랑한다고 다가오는
사람에게선 내가 물러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서면
그가 물러났다.

나에게서 물러선 그에게 다시 다가서면
그가 부담스러워 나를 피했고
내가 물러섰는데도 다가오는 이는
내가 피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웠던 것을..
내겐 늘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이보다
내가 곁에 있고 싶은 이가 필요했던 것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지지 않고
나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만이
자꾸 만나지는 어이없는 삶.
그러기에 나는 언제나 섬일 수 밖에..

- 이용채 -

“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분노와 흥분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

- '요르겐센'에서 -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11월부터 월례회 시간이 3째 금요일 저녁으로 바뀌었습니다.
- + 대림 피정이 추수감사절 관계로 12월 2일(일)로 바뀌었습니다. 안드레아 신부님과 옥타비오 수사님을 모시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Priestfield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 까지 조로사 회계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정비 \$25.
Priestfield Pastoral Center
4030 Middleway Pike
Kearneysville, WV 25430
- + 구역 1,2반 합동 구역모임점 야외 미사가 11월 4일 안드레아 신부님을 모시고 버크 공원에서 있었습니다.
- + 10월 월례회때 이레네 자매를 위해 형제자매들이 하신 비밀헌금을 모아 평의회원들이 찾아가서 전달하였습니다.
- + 입회반, 유기, 종신 서약자들은 성소후원회비를 빠지지 않고 정성껏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 11월10일 펜실바니아에서 있는 지구형제회 연중 회의에 한테레사, 김미경 자매가 다녀왔습니다.
- + 12월의 김병두 신부님께서 주관 하시는 양성 교육이 대림 피정 관계로 4째 일요일(23일) MD 성당에서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 + 김안티모 신부님의 영국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Br. Antimo Kim
Franciscan International Study Centre
Giles Lane, Canterbury, Kent, CT2 7NA
United Kingdom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이레네 자매를 위해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와 회원 가족들을 위해 ...
-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11월 월례회 시간표

7:00 PM - 다과/친교
7:30 PM - 신부님 강론
8:00 PM - 양성
9:30 PM - 월례회/미사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5번 작은꽃
봉헌: 8번 다미다노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
성체: 46번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마침: 65번 천상의 어머니

미사해설: 박상태 제1독서: 곽종무

11월 본명축일을 축하합니다

22일: 박용순 세실리아

11월 간식 담당: 한기남, 한만섭, 지수성

12월 간식 담당: 하진순, 김운옥, 조순우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강동훈 703-585-2700 johnkang52@hanmail.net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강옥희 703-440-8010 margarita222@daun.com
영적보조: 조기영 OFM choandl@hanmail.net